

3.3.1 불변성

‘mutate’라는 영어 단어는 변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immutable’이란 단어는 변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가 변할 수 없다. 불변성 데이터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이 자신의 출생증명서를 공개하고 싶는데 개인 정보는 알아볼 수 없게 만들거나 없애고 싶다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뿐이다. 첫 번째 방법은 두꺼운 유성펜을 가지고 원본 출생증명서의 개인 정보를 가리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복사기를 찾는 것이다. 복사기를 찾아서, 출생증명서의 복사본을 만든 다음에 그 복사본을 유성펜으로 지우는 것이다. 물론 두 번째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두 번째 방법을 택하면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출생증명을 공개하는 동시에 원본을 안전하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애플리케이션에서 불변성 데이터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원본 데이터 구조를 변경하는 대신 그 데이터 구조의 복사본을 만들되 그중 일부를 변경한다. 그리고 원본 대신 변경한 복사본을 사용해 필요한 작업을 진행한다.

불변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를 변경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자. 잔디 색을 표현하는 객체를 생각해보자.

```
let color_lawn = {  
  title: "잔디",
```

```

color: "#00FF00",
rating: 0
};

```

색에 평점을 매기는 함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함수는 넘겨받은 `color` 객체의 `rating`을 변경한다.

```

function rateColor(color, rating) {
    color.rating = rating;
    return color;
}

console.log(rateColor(color_lawn, 5).rating); // 5
console.log(color_lawn.rating);               // 5

```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의 인자는 실제 데이터에 대한 참조다. `rateColor` 함수 안에서 `color`의 `rating`을 변경하면 원본 `color_lawn` 객체의 `rating`도 바뀐다(여러분이 어떤 업체에게 출생증명서에서 개인 정보를 없애는 일을 맡겼는데, 그 업체가 여러분이 제공한 원본 출생증명서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모두 다 검은 유성펜으로 가린 후 돌려보냈다고 생각해보라. 여러분은 아마도 업체가 원본은 그대로 남기고 출생 증명서 복사본의 개인정보를 가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으리라 기대할 것이다). `rateColor`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면(`color` 파라미터로 전달 받은) 원본에는 아무런 해가 없이 색깔에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

var rateColor = function(color, rating) {
    return Object.assign({}, color, {rating:rating});
};

console.log(rateColor(color_lawn, 5).rating); // 5
console.log(color_lawn.rating);               // 0

```

여기서는 `Object.assign`을 사용해 색의 평점을 바꿨다. `Object.assign`은 복사기와 같다. `Object.assign`은 빈 객체를 받고, `color` 객체를 그 빈 객체에 복사한 다음에, 복사본에 있는 `rating` 프로퍼티의 값을 `rating` 파라미터의 값으로 변경한다. 이제 우리는 원본은 그대로 남겨둔 채, `rating`만 변경된 복사본을 손에 쥐게 된다.

화살표 함수와 객체 스프레드 연산자를 활용해 같은 함수를 작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든 `rateColor` 함수는 스프레드 연산자를 사용해 원본 `color`를 새로운 객체 안에 복사한 다음에 그 `rating` 프로퍼티를 덮어쓴다.

```
const rateColor = (color, rating) => ({
  ...color,
  rating
});
```

이렇게 새로운 버전의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작성한 `rateColor` 함수는 앞에서 본 예제의 `rateColor` 함수와 똑같은 일을 한다. 이 함수는 `color`를 변경불가능한 객체로 취급하며, 더 짧고, 약간 더 명확해 보인다. 여기서 반환할 객체를 괄호(`()`)로 감쌌다는 것에 주의하자. 화살표 함수의 본문에서 바로 중괄호(`{}`)를 사용해 객체를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괄호가 필요하다.

색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배열을 생각해보자.

```
let list = [
  { title: "과격함 빨강"},
  { title: "잔디"},
  { title: "파티 핑크"}
];
```

이 배열에 `Array.push`를 사용해 색을 추가하는 함수를 작성할 수 있다.

```
const addColor = function(title, colors) {
  colors.push({ title: title });
  return colors;
};

console.log(addColor("화려한 녹색", list).length); // 4
console.log(list.length); // 4
```


하지만 `Array.push`는 불변성 함수가 아니다. 이 `addColor` 함수는 원본 배열에 새로운 원소를 추가한다. 원래의 `list` 배열을 변화시키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Array.concat`을 사용해야 한다.

```
const addColor = (title, array) => array.concat({title});
```

```
console.log(addColor("화려한 녹색", list).length); // 4
console.log(list.length); // 3
```

`Array.concat`은 두 배열을 붙여준다. 여기서 `Array.concat`이 새로운 객체를 받는다. 그 객체에는 새로운 색의 이름이 `title`이라는 이름의 프로퍼티로 들어 있다. `Array.concat`은 그 객체를 원래의 배열을 복사한 새로운 배열 뒤에 추가한다.

앞에서 객체를 복사할 때 사용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배열 스프레드 연산자를 사용해 배열을 복사할 수 있다. 다음은 앞의 `addColor` 함수를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버전으로 작성한 코드를 보여준다.

```
const addColor = (title, list) => [...list, {title}];
```

이 함수는 원본 `list`의 원소들을 새로운 배열에 복사하고, `title` 파라미터로 받은 값을 `title` 프로퍼티로 하는 객체를 새 배열 뒤에 추가한다. 이 함수는 인자로 받은 `list`를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list`의 원본인 `colorArray`의 불변성을 지켜준다.⁹